F/S 내실화 방안

2015. 2월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◆ 검토배경

- F/S 단계의 예측과 본사업단계의 상세설계 결과가 다를 경우 사업비 추정 및 사업범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

- F/S 단계에서 ODA 기관간의 협업을 전제로 본사업을 검토시 사업효과성 제고에 기여

◆ 그간의 문제점

- F/S와 사업실행을 확정하는 상세설계간 차이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,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

  * ① (ADB의 사업준비제도) 물량증감, 물가변동, 자연재해, 사업계획 변경, 기준강화 등으로 인한 기준변경
    ② F/S 지원후 본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수원국의 사업 우선순위가 변동될 경우

- 유상인 EDCF의 특성상 무상 ODA와 연계할 경우 타 공여국 보다 EDCF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으나, F/S 계에서 이를 검토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

◆ F/S 내실화방안

1. 한국 컨설턴트의 개도국 상주 및 현지 컨설턴드 참여

* 최소기간 상주(2~3개월)를 통해 현지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, 사업실시시관과의 업무 협의 강화

2. F/S 검수 강화

*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F/S 방법론 및 산출물의 타당성 등을 검증

◆ F/S 내실화방안

3. F/S 사업후보군(Pool) 사전 확보

* 최소 3년 전부터 준비된 F/S과제를 지원하고,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긴급소요 F/S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
* 매년 예산요구(안)의 F/S 소요 반영시 관련 기관과 협업과제 반영

4. 현 4~6개월의 F/S 기간을 6~8개월까지 연장

◆ F/S 내실화방안

5. Staff 컨설턴트 도입 검토

* 농촌, 과학, 건축 등 EDCF내부 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1년 이내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Staff Consultant 채용을 검토

6. 사업부서의 참여 강화

* F/S 지원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간 소통 강화

◆ F/S 내실화방안

7. 대규모 사업에 대한 F/S 이전단계의 사업준비 강화

* 그간 F/S가 설계, 기술검토 등에 중점을 둠에 따라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어온 정책적, 전략적 타당성 분석을 보완
* 사업규모가 크고(2억불), 사업이 복잡한 경우 F/S 발주 전 사업 핵심 요소에 대한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강화

◆ 기대효과

1. F/S에 근거한 수원과의 협의 및 사업심사, 예산규모 추정

2. 우리나라 컨설팅기술의 해외진출 기여

3. EDCF와 연계한 국내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

감사합니다.